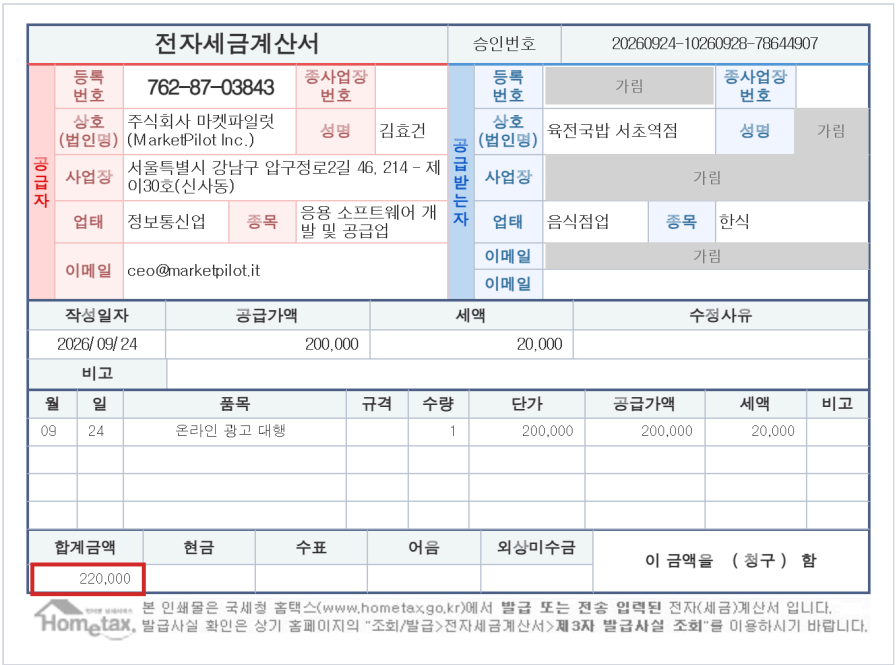
경리 없는 2인 회사, 세금계산서는 AI가 맞춰 보고 사람은 '발행' 한마디만 합니다

AI 에이전트(Claude Code)[1]가 입금 확인, 중복 조회, 양식 입력을 하고 사람은 한 줄 요약을 보고 발행만 승인합니다. 첫 건에서 22만 원으로 잘못 끊은 뒤 고친 확인 순서와, 채팅 AI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점검 방법을 함께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담 현장(코엑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6.8.25). 상담 직원 얼굴·이름표·명함은 흐리게 처리. 상담은 사람이 하고, 상담 뒤 세금계산서는 AI가 준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60924-10260928-78644907)

공급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762-87-03843	종사업장번호		등록번호	가림	종사업장번호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마켓파일럿 (MarketPilot Inc.)	성명	김효건	상호(법인명)	육전국밥 서초역점	성명	가림
사업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46, 214 - 제이30호(신사동)			사업장	가림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태	음식점업	종목	한식
이메일	ceo@marketpilot.it			이메일	가림		
				이메일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26/09/24	200,000	20,000	
비고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09	24	온라인 광고 대행		1	200,000	200,000	20,000	

합계금액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22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제3자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이 방식으로 끊은 첫 세금계산서는 틀렸습니다. 육전국밥 서초역점 사장님은 부가세 포함 20만 원을 보냈는데 합계 220,000원으로 발행됨(국세청 홈택스 발급 원본, 거래처 사업자번호·대표자·주소·이메일 가림). 같은 날 바로잡았고, 그 뒤 확인 순서를 고쳤습니다(3쪽).

17건

9.28~10.15, 18일 동안 거래처 12곳에 이 순서로 발행[2] (영수 6 · 청구 11)

17건 모두

사람이 승인한 말이 원문 그대로 기록에 남음. 승인 없이 나간 계산서 없음

16건 · 0건

금액 실수 뒤 발행한 16건 가운데 다시 고친 계산서 0건(10.26 기준)

경리 직원 없이 상담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까지 직접 확인·발행

대표 포함 상시 인원 2명인 마케팅 대행 법인을 운영합니다. 고객 가운데 식당과 미용실 같은 동네 가게가 많고, 자영업자 상담과 컨설팅을 400회 넘게 하면서 거래처가 늘었습니다. 사장님이 입금하고 카톡으로 세금계산서를 부탁하면, 팀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내 슬랙에 요청 글을 올립니다. 경리 직원이 없어서 상담과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짬을 내 직접 끊어 왔습니다.

한 장을 끊으려면 입금이 정말 들어왔는지, 이미 끊은 적은 없는지, 받은 돈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영수인지 청구인지, 작성일자를 언제로 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하고[3], 국세청으로 넘어간 계산서는 지울 수 없어서 틀리면 마이너스 계산서와 새 계산서를 다시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끊는 것보다 끊기 전에 맞춰 보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1] Anthropic, "Claude Code overview"(공식 문서). 터미널에서 파일을 읽고 고치며 명령을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https://code.claude.com/docs/en/overview

[2] 자사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2026.9.28~10.15, 알프레드 발급 17건 + 홈택스 수정발급 1회(마이너스·새 계산서 2장)) 집계. 10.16~10.26 새 발행 없음. 거래처 수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

확인과 입력은 AI, 되돌릴 수 없는 발행은 사람 승인 뒤에만

AI 에이전트에게 세금계산서 한 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되, 순서는 문서 한 장에 적어 두고 매번 그 문서대로 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대화창에서 시켜도 같은 순서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서	AI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
1 요청 정리	슬랙 요청 글이나 지시 한 줄을 받아 거래처 사업자번호, 품목, 금액, 작성일자, 입금 기록을 한 파일에 적음. 금액 근거(계약서 몇 조, 몇 시 몇 분 입금)도 같이 적음	지시 한 줄
2 중복 조회	같은 거래처로 끊은 흔적을 다섯 곳(발급 서비스 발급분, 홈택스 수집분, 국세청 발급 메일, 결제 링크, 슬랙)에서 찾음. **같은 거래가 보이면 멈추고 물음**	멈춘 건만 판단
3 입력	발급 서비스(알프레드)[4]에 로그인해 양식을 채우고 미리보기 화면만 저장. 이 단계에서는 발행하지 않음	없음
4 승인	공급받는자, 작성일자, 합계를 한 줄로 보여 주고, 사람이 한 답을 원문 그대로 기록	"발행", "진행해" 같은 한마디(17건 중 10건이 25자 이하). 승인은 대표와 공동창업자만
5 발행 뒤	국세청 승인번호 확인, 홈택스 계산서 원본 이미지를 사내 슬랙 #세금계산서 채널에 올리고 회계 장부에 연결	채널에서 원본 확인

AI가 남긴 한 건의 기록 (실제 출력, 사업자번호·사람 이름 가림, 주소·메일 줄 생략, 줄바꿈 조정)

```
$ node tax-invoice.mjs status (계획 파일)
공급받는자    육전국밥 종각역점 · ***-**-***** (개인 과세)
작성일자      2026-09-29 · 영수 · 발급기한 2026-10-10
품목 1        온라인 광고 대행 · 공급 181,818원 · 세액 18,182원
              · 합계 200,000원 [합계 기준]
합계          공급가액 181,818원 + 세액 18,182원 = 200,000원
입금 근거     계좌이체 2026-09-29 13:49 200,000원 (입금자 가림)
받은 돈       200,000원 · 합계와 같음
승인          "육전국밥건은 발급하고 (팀원)에게 알려줘"
              (김효건 · 2026-10-08 13:52)
발급          승인번호 20260929102610089380863 8
              2026-10-08 13:52:43
증빙          올림 20260929102610089380863 8
상태          발급됨·증빙 올림
```

발행 직후 사내 슬랙 #세금계산서 에 올라간 글 (원문)

> **[세금계산서 발급]**
>
> - 업체명 : 육전국밥 종각역점
> - 합계 : 200,000원 (공급가액 : 181,818원 · 부가세 : 18,182원)
> - 품목 : 온라인 광고 대행
> - 날짜 : 2026-09-29 · 9월 매출 (발급일 2026-10-08)
>
> 스레드에 홈택스 계산서 원본 이미지 첨부

AI 작업 화면 캡처가 아니라 국세청 원본을 올리게 해서, 팀원 누구나 언제 보든 무엇이 실제로 나갔는지 바로 압니다.

도구를 이렇게 고른 이유

- **Claude Code**: 파일을 읽고 쓰고 브라우저까지 조작할 수 있어, 슬랙·발급 서비스·메일함·장부를 오가는 일을 한 번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확인 순서를 적은 문서와 점검용 작은 프로그램도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 **발급은 알프레드, 수정발급만 홈택스**: 알프레드는 계좌 입출금과 발급 내역을 한곳에서 보여 줘 입금 대조와 중복 조회가 쉬웠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기능이 없어서 수정발급만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는 같은 계정이 한 곳에서만 로그인돼 작업끼리 서로 끊기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건씩 차례를 정해 씁니다.
- **로그인 정보**는 AI 대화창에 쓰지 않고 회사 금고에서 프로그램이 읽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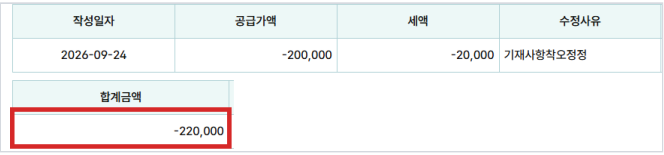
[4] 알프레드(app.alfred.kr).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계좌·카드 내역 수집을 함께 하는 회계 서비스. 이 사례에서는 발급 화면으로만 씀.

첫 건에서 22만 원으로 잘못 끊고 같은 날 2장으로 바로잡음

9월 28일 첫 건에서 실수가 났습니다. 저는 "공급가액 20만 원에, 품목은 온라인 광고 대행"이라고 지시했고, AI는 그 말대로 공급가액 200,000원에 부가세 20,000원을 더해 합계 220,000원으로 발행했습니다. 실제로 육전국밥 서초역점 사장님이 보낸 돈은 부가세 포함 20만 원이었습니다. AI는 입금 20만 원과 합계 22만 원이 다른 것을 보고도 차액 2만 원을 받을 돈(미수)으로 적고 청구 계산서로 끊었습니다. 지시는 제가 틀렸지만, **AI가 차이를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저에게 물었다면 발행 전에 멈출 수 있었던 실수**였습니다.

슬랙에 올라온 발행 알림을 본 제가 15분 뒤인 16시 16분에 입금 20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바로잡았고, 처음 발행 4시간 반 뒤인 20시 35분에 AI가 홈택스에서 처음 계산서를 지우는 마이너스 계산서 1장과 바른 금액의 계산서 1장을 끊었습니다.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을 때 법이 정한 방식 그대로입니다[5].

계산서	발행 시각	공급가액	세액	합계
① 처음 계산서(청구)	9.28 16:01	200,000	20,000	**220,000**
② 마이너스 계산서	9.28 20:35	-200,000	-20,000	-220,000
③ 다시 끊은 계산서(영수)	9.28 20:35	181,818	18,182	**200,000**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26-09-24	-200,000	-20,000	기재사항착오정정

합계금액
-220,000

② 마이너스 계산서, 수정사유 '기재사항착오정정'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정사유
2026-09-24	181,818	18,182	기재사항착오정정

합계금액
200,000

③ 다시 끊은 계산서, 합계 200,000원 (둘 다 홈택스 원본의 금액 구역, 전체는 첨부 그림 01)

받은 돈과 합계가 다르면 멈추게 한 뒤 같은 20만 원 3건 정상 발행

그날 바로 확인 순서에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 **금액을 들으면 부가세 포함 합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공급가액 20만 원"처럼 말해도 통장 입금액과 다르면 되묻습니다.
- **받은 돈과 계산서 합계가 1원이라도 다르면 발행을 멈춥니다.** 영수든 청구든 대표가 확인한 말을 받아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차이를 미수로 짐작해 끊는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육전국밥의 다른 지점 3곳(교대사거리점, 이태원역점, 종각역점)도 9월에 20만 원씩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10월 2일 AI는 바로 끊지 않고, 입금 20만 원을 부가세 포함 합계로 보고 공급가액 181,818원과 세액 18,182원으로 끊겠다는 기준을 사내 메신저에 먼저 올려 팀원에게 확인을 구했습니다. 이견이 없었고, 10월 8일 대표 승인을 받아 입금 200,000원을 다시 대조한 뒤 **공급가액 181,818원, 세액 18,182원, 합계 200,000원(영수)으로 3건 모두 맞게 끊었습니다.**



작성일자(공급년월일)* 2026.09.29 비고 비고사항 입력

거래 품목 삭제 행 추가

번호	월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합계금액*	공급가액*	세액*	비고
1	2026.09.29	온라인 광고 대행	입력	입력	입력	200000	181818	18182	비고

총 합계금액 200,000원 총 공급가액 181,818원 총 세액 18,182원

외상미수금 입력 현금 입력 수표 입력 어음 입력 이 금액을 ◯ 청구 ◉ 영수 함.

10월 8일 3건 가운데 종각역점의 발급 미리보기(알프레드). 합계 200,000원, 공급가액 181,818원, 세액 18,182원, '영수'에 표시. 거래처 칸이 없는 아래쪽만 잘라 실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음 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한 계산서와 바르게 고친 계산서를 함께 발급.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

에이전트 없이 채팅 AI로 따라 하는 세금계산서 점검

코딩이나 에이전트가 없어도 같은 점검은 채팅 AI(ChatGPT, Gemini, Claude 등)로 할 수 있습니다. 끊기 전에 세 가지를 붙여 넣고 아래처럼 물어보면 됩니다. **홈택스 입력과 발행 버튼은 사람이 직접 누릅니다.**

붙여 넣을 것

- 거래처가 보낸 요청 문자(무엇을, 얼마에)
- 통장 입금 내역 한 줄(날짜, 시각, 금액)
-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이번 달 발급 목록(엑셀 내용을 복사)

물어볼 말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첫 건 자료로 넣어 본 답은 5쪽)

```
아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해. 표로 정리해 줘.
1) 요청 문자의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문자에 없으면 '확인 필요')
2) 공급가액과 세액(원 단위)
3) 계산서 합계와 입금액이 같은지(다르면 미수라고 짐작하지 말고 '확인 필요')
4) 발급 목록에 같은 거래처, 같은 금액이 이미 있는지
5) 영수와 청구 중 무엇인지, 작성일자와 발급 기한
맞지 않거나 모르는 칸은 채우지 말고 비워 둔 뒤 따로 표시해.
```

작성일자를 실제 거래일로 적으면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6]. AI가 말한 기한은 홈택스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7건을 끊으며 정한 규칙

- **금액 차이는 AI가 해석하지 않고 사람에게 묻게 합니다.** 이 사례의 실수는 제 말에서 나왔고, AI가 차이를 미수로 짐작하고 그대로 발행했습니다. 차이가 보이면 묻게 하면 발행 전에 막습니다.
- **모르는 칸은 비워 두라고 적습니다.** 사업자 정보가 없을 때 AI가 그럴듯하게 채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되돌릴 수 없는 일은 AI가 준비만 하고 사람이 승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그렇습니다. 승인한 말은 원문 그대로 남깁니다.
- **끊은 뒤에는 원본을 한곳에 모읍니다.** 단체방이나 폴더 하나에 원본을 모아 두면 다음에 같은 건을 두 번 끊을 뻔할 때 바로 보입니다.

이 방법이 맞는 곳과 넓혀 쓸 곳

- **맞는 곳**: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1쪽 각주 3) 가운데 경리 직원이 없는 1~5인 사업장, 동네 가게. 위 질문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넓혀 쓸 곳**: 송금 전 계좌·금액 확인, 견적서와 계약서 금액 대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일.

개인정보와 책임

- 이 자료의 화면과 수치는 모두 실제 기록입니다. 거래처 사업자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이메일, 입금자 이름과 상담 사진 속 얼굴·이름표·명함은 가렸습니다.
- 채팅 AI에 붙여 넣을 때도 사업자번호와 이름은 가리고 금액과 날짜만 넣어도 점검이 됩니다.
- 로그인 정보와 인증 정보는 AI 대화창에 쓰지 않습니다. 발행 승인은 대표와 공동창업자 두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 AI가 준비한 계산서라도 국세청에 나가면 회사가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 전에 보는 기록에 받은 돈과 합계가 같은지를 함께 띄우게 했습니다(2쪽 노란 줄).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3호. 관계 증명서류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4조

9월 28일 첫 건 자료로 4쪽 질문을 다시 넣어 본 결과

4쪽 질문에 첫 건 당시 자료를 그대로 붙여 채팅 AI 모델 Gemini 2.5 Flash[7]에 한 번 넣었습니다(2026.10.26). 이번 달 발급 목록은 일부러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칸을 비워 두는지 보려는 것입니다.

붙여 넣은 자료 (사업자번호·이메일·입금자 가림)

[요청 문자 · 9월 24일 12:41 팀원]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 업체명 : 육전국밥 서초역점
- 사업자등록번호 : (가림)
- 이메일주소 : (가림)

[대표 지시 · 9월 28일]
공급가액20만원에, 품목은 온라인 광고 대행

[통장 입금 내역]
2026-09-24 12:28 입금 200,000원
(입금자 가림)

[이번 달 발급 목록]
(붙이지 않음)

요청 문자에는 금액이 없었고, 금액은 대표 지시에서만 나왔습니다. 첫 건 때 AI 에이전트가 받은 자료와 같습니다.

AI가 만든 표 (글자는 원문 그대로, 굵은 표시만 뺌)

항목	내용	비고
1) 요청 문자의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필요**	요청 문자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 지시는 공급가액 20만원인데, 입금액은 20만원으로 불일치합니다.
2) 공급가액	200,000원	대표 지시사항에 따름
세액	20,000원	(공급가액 200,000원 x 0.1)
3) 계산서 합계와 입금액이 같은지	**확인 필요**	계산서 합계(220,000원)와 입금액(200,000원)이 다릅니다. 20,000원의 미수금(부가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목록에 같은 거래처, 같은 금액이 이미 있는지	**확인 불가**	'이번 달 발급 목록' 정보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5) 영수와 청구 중 무엇인지	영수	통장 입금 내역(200,000원 입금) 확인 시 이미 입금이 완료되었으므로 '영수'로 처리합니다.
작성일자	2026년 9월 24일	입금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 지시일 9월 28일은 발급 처리일)
발급 기한	2026년 10월 10일	공급일(혹은 입금일)이 속하는 달(9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표 아래 덧붙인 두 줄 가운데 첫 줄 (원문 그대로)

금액 관련: 대표님께 공급가액 20만원 지시가 부가세 별도 20만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금된 20만원이 부가세 포함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지시대로 발행 시 2만원의 부가세가 추가로 발생).

잡은 것과 놓친 것

구분	내용
잡은 것	**합계 220,000원과 입금 200,000원이 다르다며 '확인 필요'로 표시하고, 대표에게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라고 답함.** 첫 건 때 AI 에이전트는 같은 차이를 미수 2만 원으로 적고 발행했습니다. 질문에 "미수라고 짐작하지 말고"를 넣으니 물어볼 항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워 둔 것	발급 목록이 없다는 것을 알고 4번을 '확인 불가'로 둠. 그럴듯한 답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놓친 것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5번을 '영수'로 채움. 비고에 미수금 가능성도 함께 적었습니다. 모르는 칸은 비워 두라고 해도 이렇게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AI의 표는 발행 전에 물어볼 것을 찾는 데만 쓰고, 금액과 영수·청구, 발행 여부는 사람이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AI 에이전트에게 발행 승인을 맡기지 않은 까닭과 같습니다.

[7] Google Gemini 2.5 Flash 모델. 2026.10.26 위 자료와 4쪽 질문을 한 번 넣어 받은 답(API 1회 실행, 다시 묻거나 고르지 않음). 같은 질문은 Gemini 앱이나 다른 채팅 AI에 그대로 붙여 넣어 쓸 수 있습니다.